

트렌드로 자리잡은 '책임투자'... 수익률 증명은 아직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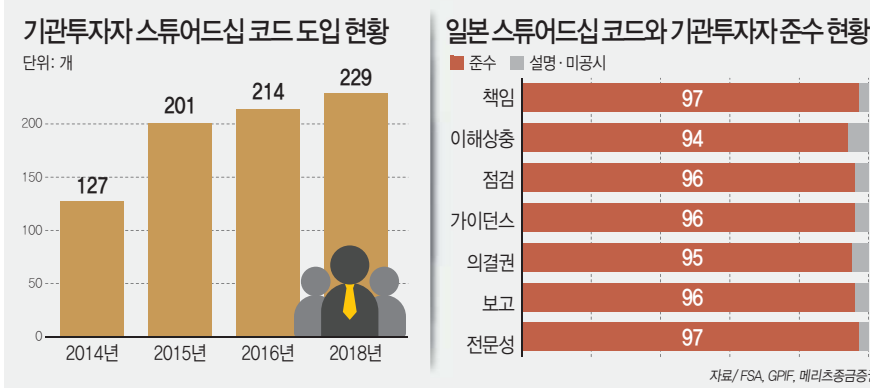
(2) 책임투자자와 수익률

스튜어드십코드 등 책임투자 추세
수익률 미비, 정치적 수단 등 지적

글로벌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가 큰 물결을 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을 비롯해 국내 기관투자자도 스튜어드십 코드(steewardship code·기관수탁자책임)에 가입하는 등 트렌드에 발을 맞추는 추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투자의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데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면서 책임투자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책임투자는 글로벌 연기금 사이에서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0년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한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아, 일본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메리츠증권증권 정다아 애널리스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2년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년 동안 침체된 일본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2014년 5월 30일 일본 국민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 전체로 확산, 올해 7월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이 229개까지 확대됐다.

국내서도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책임투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피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다만 아직 책임투자 자체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송승연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익률 전쟁' 보고서를 통해 "아직 글로벌 연기금이 공유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데다 책임투자의 성과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산하 책임투자 연구소에 따르면 118개의 연기금, 기관, 국부펀드,

보험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관 중 24%는 책임투자로 인한 수익률 개선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연구원은 "CalPERS나 CalSTRS 등 일부 연기금은 지배구조 및 책임투자 원칙(Governance & Sustainability Principles)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투자 철회보다 건설적인 개입을 선호한다고 명시했다"며 "투자 철회로 인한 수익률 하락 역시 '수익률 극대화'라는 수탁자의 책임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책임투자자에 대해 '수익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ACCF(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라는 싱크탱크는 '포인트 오브 노리턴즈(Point of No Returns)'라는 보고서를 통해 CalPERS의 책임투자 정책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돼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리스크와

수익률 관리 가운데 딜레마를 겪어 왔다"며 "공적자금의 성격 상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시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캐나다공적연금(CPP)의 경우 1998년 별도의 공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세우고,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2008년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설립해 자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책임투자에 대한 정치적 목적 달성 등"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비정치적인 위탁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해야 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이 의무로 하지 않는 정보 공개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적연금도 사적연금과 동일한 방법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기업 가치 믿는다”

증시 침체기, 제약바이오사 자사주 매입 줄이어

주가 방어 효과·가치 자신감 드러내

증시 침체 속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다. 주주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12일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브이엠이 매입하는 자사주 수량은 17만1821주이며, 매입 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취득 예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이다. 전일 기준 제이브이엠 주가는 2만7800원으로, 연중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다. 제이브이엠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이브이엠측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국내 영업 등을 한 미약품그룹과 함께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직전 분기는 태풍 등 영향으로 일부 해외 수출 물량 선적이 연기되는 등 일

시적 요인이 반영됐지만 올 4분기와 내년에는 지속적인 안정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려제약은 전일 자사주 2만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금액은 1억3960만원으로,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다.

회사 측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및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 목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6일 자기주식 100만주를 69억6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상 기간은 내년 3월 6일까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지난 달,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내년 2월까지를 기한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총 45만 주, 978억7500만원 규모를 매입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취득 예정 주식은 987억 원 규모로 총 155만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약 495억 원 규모의 우리 사주 매

입도 동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본질적 가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보존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오너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휴온스글로벌의 윤성태 부회장은 지난 4일 자회사인 휴메디스 주식 5869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윤 부회장이 가진 휴메디스 지분율은 0.35%로 증가했다.

윤 부회장은 “휴메디스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함에 따라, 경영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휴메디스의 기업 가치를 보존하고 주주 가치 제고 및 저평가된 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역시 지난 10월 자사주 205주를 장내 매수한 데 이어, 지난 11월에도 549주를 추가 매입한 바 있다. 투입 비용은 총 3억5000만원 규모다.

/이세경 기자 seilee@

퇴직연금 제안할 때 비교 수익률 기재해야

금감원 제안서·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익률과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여부나 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도 명문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정을 위해 상품제안서를, 적립금 운용 현황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크고, 투자자의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 제공이 미흡해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상품제안서는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여부,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중도해지시 불이익, 물량제한, 투자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추가상품 편입(line-up)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 제공하고, 장기수익률을 우선 기재한다.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도 알려야 한다.

투자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과 함께 가입금액 백만원 당 얼마인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는 적립금 운용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계대출 증가 추이 및 잔액〉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6		2017		2018			18.11월말 잔액	
	연중	11월	연중	11월	연중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¹⁾²⁾	68.8	8.8	58.9	6.7	55.4	5.1	7.8	6.7	822.2
(주택담보대출) ²⁾³⁾	55.8	6.1	37.2	3.0	32.9	3.7	3.5	4.8	603.0
(기타대출) ⁴⁾	12.9	2.7	21.6	3.7	22.2	1.4	4.2	1.9	218.0

주:1)예금은행(은행신락 포함), 중보대출은 신탁 제외. 2)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자료=한국은행

은행 가계대출 6.7조↑... 주담대 증가세 여전

이달부터 주담대 감소 현상 나타날 것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한 8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전월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한풀 꺾였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603조원으로 지난 달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폭은 10월 1만2000가구에서 11월 4000가구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증가규모도 10월 1만4000가구에서 11월 1만2000가구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3~4개월 정도 시차 때문에 11월까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며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11월 1조9000억원 증가한 218조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10월 4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11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8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10월 4조6000억원에서 11월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중소기업대출(673조9000억원)이 연말 실적평가에 대비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한 달 새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대출(157조원)은 10월 중분기말 일시상환분 채취금으로 큰 폭 증가한 특이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1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김희주 기자 hj9@

경부선 언양~영천 4차로 → 6차로 개통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과 경북 영천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착공 7년 만인 12일 오후 6시에 확장(4→6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확장 구간은 55km이며 2011년 12월 착공해 사업비 8940억원이 들었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68km에서 시속 95km로 빨라질 전망이다. 통행시간은 50분에서 35분으로 단

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특히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면 연간 약 460억원대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도로 확장과 함께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부산방향)도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 4곳을 추가 설치했다. 언양휴게소 주차가능 차량 대수는 16대에 서 236대로 늘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